

## 코로나19 n차 감염 확산될까 ‘불안불안’

제주 35번 확진자 나와 24일부터 사흘새 7명 지역감염 확산 우려 팽배 원 지사 “수도권 방문자 선제적 검사 실시” 지시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n차 감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전 4시10분쯤 도내 35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내에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총 7명(제주 29·30·31·32·33·34·35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접촉자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코로나19 지역 감염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35번 확진자 A씨는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고부루비어컴퍼니’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서귀포보건소로부터 “지난 22일 A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34번 확진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25일 오후 8시쯤 자가용으로 서귀포보건소를 방문해 검체 채취했고, 26일 오전 4시 10분쯤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함께 검사를 받은 부인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A씨의 자택과 업소 내·외부를 방역 소독하고,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날 도는 제주 34번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했다.

34번 확진자와 관련된 동선은 ▷ 제주약수터 올레시장점(서귀포시 서귀동, 접촉자 없음) ▷ 제주약수터 본점(서귀동, 직원 1명) ▷ 베케(효돈동, 접촉자 없음) ▷ 고부루비어컴퍼니(서홍동, 직원 2명) ▷ 취향의 섬(남원읍, 직원 1명) ▷ 애플망고1947(상호동, 접촉자 파악 중) ▷ JDC(제주시 아라동, 직원 11명) ▷ 사는 맛 먹는 맛(제주시 애월읍, 직원 1명) ▷ 달백(제주시 이도2동, 사장 1명 외 접촉자 파악 중) 등이다.

도는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 17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자가격리를 통보하는 한편 방문자 9곳에 대한 방역소독 조치를 완료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이날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차단을 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8·15 연휴기간 동안 수도권을 방문한 도민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최근 수도권 지역을 방문한 도민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이로 인해 2차 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2차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수도권을 다녀온 도민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8·15 연휴기간 수도권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및 관련 직원 230명과 입주업체 직원 156명 등 총 3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사는 지난 24~25일 이들 동안 JDC 직원 2명이 확진자(제주 30·34번)로 판정됨에 따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강풍을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가 26일 오후 제주를 빠져나간 가운데 이날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앞 차귀도 해상에 거센 파도가 밀려들고 있다.

이상국기자

## “긴장속 안도”... 태풍 ‘바비’ 어제 제주 빠져나가

순간최대풍속 초속 36.4m 100여건 신고불구 피해 적어 오늘까지 많은 비·강풍 예상

강한 바람을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가 제주 곳곳에 생채기를 남기고 빠져 나갔다. >> 관련기사 4면

2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태풍 바비는 제주시 서쪽 약 200km 해상으로 진출한데 이어 오후 9시쯤에는 목포 서쪽 약 160km 해상까지 북상했다. 제주에 가장 근접했던 오후 2시쯤 태풍 바비의 중심기압은 945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은 초속 45m로 강도 ‘매우 강’인 상태였다.

태풍 바비는 이날 오후 9시쯤까지 강도 ‘매우 강’의 세력을 유지하다 점차 약화돼 27일 오전 3시부터 강도 ‘강’으로 한단계 떨어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제주에는 하루 종일 강풍이 불었다. 제주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관측된 곳은 윗세오름으로 순간최대풍속(10분 평균 측정치)은 초속 36.4m를 기록했다. 또 제주공항(초속 32.7m)과 새별오름(초속 32.2m), 삼각봉(초속 31.8m)에서도 한때 초속 30m를 웃도는 강한 바람이 불었다. 산지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전날

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한라산 사계비동산에 408.5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 삼각봉 391.0mm, 윗세오름 316.5mm, 영실 266.5mm, 어리목 263.5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또 제주 북부 115.6mm, 산천단 218.0mm, 송당 101.5mm, 고산 108.1mm, 대정 144.5mm, 서귀포 93.5mm 등의 강수량을 보였다.

이날 제주에 불어 닥친 강풍으로 1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대규모 피해를 줄만큼 역대급 수준은 아니었다.

당초 기상청은 2000년대 들어 처음인 강도 ‘매우 강’의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순간최대풍속 역

대 1위였던 솔릭(초속 62m)의 강풍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태풍 바비가 예상보다 더 서쪽으로 이동해 북상하면서 제주 육상 전역은 태풍의 중심부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태풍이 이 고기압에 밀려 예상보다 더 서쪽으로 치우쳐 이동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기상청은 제주가 태풍의 중심부근에서는 벗어났지만 직·간접영향으로 27일 자정까지 50~80mm 비가 더 오고 많은 곳은 150mm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7일 오전까지 제주 육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어 뱃길 통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전기차 2만대 시대... 목표 달성은 난항

올 7월 2만105대 등록... 보조금 축소 등 여건 불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기차 2만대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구매보조금 축소, 개인충전기 지원 중단, 충전요금 단계적 현실화 계획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계획 대비 전기차 보급 목표달성이 미흡한 가운데 2030년 37만 7000여대 목표 달성까지 갈 길은 멀

기만 하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기차 등록대수는 2만105대로 집계됐다. ‘탄소없는 섬 2030’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민간 보급 확대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계획 대비 전기차 보급 목표달성이 미흡한 가운데 2030년 37만 7000여대 목표 달성까지 갈 길은 멀

보급대수는 26일 기준 2384대다.

제주도의 제3차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2020~2030)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도입 누적 목표는 3만2428대며, 2025년 16만7165대, 2030년은 37만7217대다. 보급 정책 추진 여건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목표 달성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도도 배터리 등 기능 향상에 따른 전기차 가격의 고가 정책과 해

를 거듭할수록 정부보조금이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 도민들의 구입의지를 저하시키는 등 전기차 확대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보급 활성화를 기대할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보급자들이 일정비율 이상을 제공해 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차량가격 인하 유도를 위해 성능 대비 판매가격을 낮춘 차량에 대해 보조금 차별화 지원 정책 등도 발굴 방침이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지금은 마음의 손을 잡을 때

함께 손잡고 건넌 일상의 소중함을 이제서야 배웁니다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서로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분명,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의 손을 맞잡은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한국전력 KEPCO**